

“유달두채를 찾아서” 목포 夫成奎씨 업체

750여평의 대지위에 4개동 200여평의 그의 공장에서 하루 7가마의 콩과 2말의 녹두로 4, 200여Kg의 콩나물과 140여Kg의 숙주나물을 생산하는 그의 공장은 콩나물 공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거대한 농장을 방불케 되기 까지 부성규씨의 숨은 노력은 그 누구 보기도...

유 달산과 노적봉이 올려다 보 이는 목포 시가지를 벗어 나 무안으로 향하는 잘 포장된 8 11번 지방도로를 따라 동북쪽 으 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부성 규씨의 콩나물 공장은 도심을 떠 난 조용한 농촌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콩나물공장 이라 하기보다 는 거대한 농장을 방불케 한다.

행정구역 으로는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영산리 292번지, 대지750 여평위에 세워진 夫成奎(37세) 씨의 콩나물공장은 부씨 가족이 거주하는 본가를 제외한 4개동 2 00여평의 공장에서는 매일 7가마 의 콩과, 2말의 녹두를 소비하면 서, 4200kg의 콩나물과 140kg의 숙주나물을 목포 및 완도, 무안 지방의 250여 거래처에 출하하고 있다.

목포가 해안지대이다 보니 물 이 좋지 않아 좋은물의 수맥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4년전 이곳으로 처음 올때에는 공장앞의 도로가 포장이 되지않 아 원료의 수송 및 콩나물의 출 하에 많은 애를 겪었으나, 다행 히 2년전에 말끔히 포장됨으로써

지금은 자동차로 약 10분 정도면 목포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게되 어 부씨의 사업에 큰 몫으로 도 움을 준다고 한다.



부씨가 그의 공장앞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광주의 박명재 회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콩나물이 크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친이 30여년 전에 완도지역에서 두부제조업을 하셨던것이 인연이 되어 두채업에 손을 대게되어 목포지역의 막강한 두채업자로 성장하기까지는 남다른 인내와 꾸준한 노력끝에 얻어진 당연한 결과임을 공장 시설등, 주위 환경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두부공장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으로 수도물을 사용하여 키워보았으나 콩나물이 그런대로 크대요, 그러나 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읍니다. 콩나물의 품질 개선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두부제조업으로 확보한 거래처를 통하여 성실하게 콩나물을 공급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그의 취미이던 것이 어느새 콩나물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로 변할만큼 콩나물에 대한 집착은 매우 강했다고 한다.

그런결과 두채업을 시작한지 1년 사이에 기존 업자들을 제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급 성장한 데에는 제 자신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광주에 계시는 박명재회장등 주위의 조언 영향도 매우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업자의 덤핑으로 기



부씨의 콩나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콩나물, “목포유달”이란 상호가 통에 인쇄되어 있다.

준 거래처가 잠식 당할때는 정말 괴로웠고 그때마다 기존 거래의 지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업자의 덤핑조건 내지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콩나물을 공급해온 결과 이제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10년 전인 1978년에 진도가 고향인 부인 이옥엽(32세)씨와 결혼, 현재는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굳이 아들을 두고싶어 2년후 1남을 얻게 되었다고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에 큰 잘못이나 저지른 양 수줍어하는 그의 모습은 아직 옛된 흥안의 소년을 연상케 하지만, 대화가 일단 콩나물에 대한 소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에

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이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성 싶다.

“현재 작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콩나물 수요의 감소 현상은 일시적 일뿐 뒤이어 업자들의 각성으로 두채업 발전의 도약적 단계가 될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기도.....

두채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기위한 제1차의 단계는 시설의 현대화 내지는 기술의 과학화라는 것은 두채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절실히 바라는 사항이다.

부(夫) 씨 자신은 1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면서 아직까지 콩나물 재배를 원시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고, 겨울에는 하루에 연탄을 100여장 이상을 소비하기 때문에 거의 한사람은 연탄불에 매달려야 하는지라, 시설의 기계화 내지는 자동화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며, 콩나물 재배기술의 개선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농약콩나물 사건의 시비와 같은 악순환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이르기 위해서는 업자 스스로 각성을 하여 상거래 질서를 존중하는등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각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두채업 자체가 영세하다 하여 방치 내지는 편파적인 행정지도 체제에서 탈피해야 하는 동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진정한 이익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정부와 두채업자간의 지도 감독의 교량역할과 대화의 창구를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콩나물에 대한 행정부재 상태에서 오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농약콩나물사건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콩나물의 수요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곧이어 업자들 스스로의 각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두채업 발전의 도약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

그는 자기 업체의 상호를 유달 두채로 결정하기에는 나름대로의 고심을 겪어야 할 정도로 애항심이 무척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목포는 유달산과 삼학도가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달과 삼학 두가지의 이름을 놓고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허나 현재는 삼학도의 개발로 그 원래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유달로 정착이 되었지만 삼학도의 개발이 목포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였는지는 몰라도 목포시민의 진정한 애환이 담긴 삼학도를 행정당국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두어 그 개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은근히 지방행정당국의 무성의함을 꼬집기도 한다.

마지막 오늘에 이르기 까지 성장한 원인을 고진감래의 소신물이라 할 수 있지만, “혹시 그보다 더 기본적인 비결이 숨겨져 있지 않느냐”고 묻는 필자에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내의 내조의 공이 오늘이 있게한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저 못지않게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夫) 씨가 주로 밖에서 일을 보는동안 콩나물의 재배등 내부의 일등은 아내의 힘이 크다고 하면서 은근히 오늘에 있기까지의 공을 아내에게 돌리기도 한다.



멀리서 바라본 부씨의 콩나물 공장 전경